

# “적게 일하면서 무슨 수로 혁신을 하는가”

태평로

김태훈  
논설위원



어릴 적 읽은 소년지엔 종종 미래의 모습이 그려졌다. 온종일 빈둥거리며 놀아도 모든 게 풍요로운 천국이었고 혁신을 거듭하면 그런 날이 온다고 했다. 자라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1990년대 애플 광고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고 했는데, 미국은 에디슨부터 빌 게이츠를 거쳐 잡스와 마스크, 젠슨 할까지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가 끊없이 탄생하는 나라다.

그런데 마스크가 트럼프 2기 정부호 울부를 맡아 지난주 낸 구인 공고가 ‘무엇으로 혁신을 이루는가’를 돌아보게 했다. 혁신의 대명사이니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조건을 달 줄 알았는데 거꾸로였다. 주 80시간 일을 시키고 월급은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했다. 한국에서 이런 공고를 냈다던 약덕 사업주란 낙인이 찍혔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노동은 없다. 나는 마스크가 줄 보상은 ‘혁신적인 리더와 함께 일하고 성공한 경험’ 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 경험이 커리어 가치를 높여 더 좋은 회사,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는 현실적 판단도 물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전기작가 월터 아이작슨은 우리 시대 두 명의 걸출한 혁신가인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잡스의 평전을 썼다. 전기에 소개된 두 사람은 직원에게 과중한 노동시간과 열정을 요구하는 리더들이었다. 머스크는 일할 때 ‘광적인 긴박감’을 강조했다. 스페이스X 우주선 로켓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단지 긴박감을 잃지 않게 하려고 단 몇 주 만에 로켓을 세울 스탠드를 완성하라고 지시하는 식이다. 전기차 모델3 출시를 앞두고는 네바다 공장에 죽치고 하루 3~4시간

“세상 바꾸려면 땀 흘려야”  
머스크도 잡스도 한목소리  
우리 ‘주 52시간’ 초과 다땀  
땀 흘려 성공한 경험 있어선가

만 하면서 직원들을 주 7일 노동으로 내몰았다. 잡스 평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1984년 매킨토시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3일은 퇴근도 못 하게 막았다. 직원들에게 “해군이 되니 해적이 되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표 달성에 매진하라고 그쳤다. 과업을 완수하면 “여정 자체가 보상”이라고 했다.

그런데 전기에는 이런 두 사람에게 매료된 직원들의 증언이 여러 실려 있다. 잡스가 생일을 맞으면 직원들은 고속도로 광고판을 사서 ‘생일 축하해요, 스티브.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해적 일동’이라 썼다. 협력업체들도 비슷한 증언

을 했다. 잡스는 납품 시간을 촉박하게 제시한 뒤 협력업체 경영진이 고개를 저으면 ‘빌어먹을 고자X들(Fucking Dickless Asshole)’이란 막말을 퍼부었다. 그런데도 밤샘으로 납기를 지킨 한 업체는 잡스가 한 욕설 머리글자를 딴 ‘팁 FDA’라 새긴 제킷을 만들어 자랑 스투레 입고 다녔다. 머스크의 뒤달에 시달린 직원들도 기적 같은 성공을 맞으면 태도가 달라졌다. ‘지옥문이라도 선택을 세울 스탠드를 완성하라고 지시하는 식이다. 전기차 모델3 출시를 앞두고는 네바다 공장에 죽치고 하루 3~4시간

머스크의 구인 공고에 “나라를 기업처럼 운영하려느냐?”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 나라라고 다를 게 있나. 우리에게도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땀 흘려야”던 리더가 있었다. 그의 리더십은 강하고 매서웠지만 많은 국민이 그를 진짜 리더로 존경한다. 그의 여정에 동참해 성공을 맛봤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가 바뀌며 따뜻한 말을 하는 리더가 대체. 그러나 본질은 머스크와 잡스처럼 성공을 경험하게 하고 땀 흘린 만큼의 보상을 안기는 리더. 그래서 여정에 동참한 것을 보상으로 느끼게 하는 리더다. 최근 주 52시간 초과 근무 허용 여부를 두고 우리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혁신가의 나라 미국에서도 첫 손 짚는 혁신가는 여전히 열정과 헌신은 효율의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을 덜 할까 고민한다. 우리가 땀 흘려 성공한 경험을 해본 지 너무 오래돼 이렇지가.

김준의 맛과 섬 [17]

## 완도 청산도 전복 김국

섬 여행은 불편하다. 그래서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다. 더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섬으로 기억된다. 그런 기억을 간직한 청산도를 늦가을에 찾았다. 지금처럼 오기는 여객선이 자주 없을 때다. 밤바위에 올랐다가 막배를 놓쳤다. 그리고 권덕리 한 민가에서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잤다. 따뜻한 온돌방에, 김치와 동치미와 된장국, 그리고 고등어 한 마리까지 구워 차린 밥상까지 호사를 누렸다. 게다가 밤늦게까지 청산도에서 자식을 키우며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다. 그 뒤 청산도에서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었고, 슬로시티(Slowcity)로 지정되면서 여행객이 크게 늘었다. 슬로시티의 출발이 슬로푸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산도에 잘 어울리는 음식을 만나지

못했다. 이번에 그 아쉬움을 달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복 김국을 만났다. 청산도 사람들은 바다보다 땅에 기대어 살았다. 그래도 쌀이 부족해 ‘청산도 처녀 쌀’ 사 먹고 시집가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청산도 섬살이가 얼마나 고단했을까. 여행자들이 즐기는 ‘느린 섬 여행’은 고단한 섬살이의 이면이다. 한때 청산도 식량을 제공했던 구들장은 이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농부는 나이 들었고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 반면에 전복 양식이나 김 양식을 하려는 자식들은 하나둘 섬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제 땅보다 바다에 기대어 살아야 할 형편이다. 김 양식은 우리나라 양식업의 출발이며, 한때 완도 지역경제를 좌우했다. 지금은 김 양식보다는 전복 양식이 완



도 수산업을 이끌고 있다. 새옹지마라 그랬던가, 김은 수출에 힘을 얻어 양식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복은 소비도 줄고 폐사율이 늘어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산도에서는 전복과 김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복 김국은 완도 경제를 책임졌던 과거와 현재의 해산물로 만들어진 음식이다. 옛날 김 양식을 하던 가정에서 먹던 김국이 전복과 만나 보란 듯이 식단 차림표에 이름을 올렸다. 청산도는 봄도 좋지만, 겨울 여행이 흐릿하고 슬로시티에 잘 어울린다. 이번 겨울에 청산도 여행도 하시고, 딱 곤하고 감칠맛 넘치는 전복 김국을 맛보시길 바란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 社 說

###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폭탄 예고, 대비하면 극복할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두 나라가 마약 유입과 불법 이민자들을 제대로 단속할 때까지 관세 징벌을 때리겠다는 것이다. 마약류인 중국산 펜타닐 유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에 대해서도 기존 추가 관세에 10% 관세를 더 매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관세 표적이 된 멕시코·중국·캐나다는 미국의 1~3위 수입국이다. 관세가 면제되는 전통적 우호국인 멕시코·캐나다에까지 마약·이민 같은 비경제적 이슈를 문제 삼아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목적 달성을 위해 관세 카드를 적극적으로 휘두를 것임을 예고한다.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것이다.

트럼프 집권 1기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 중국과의 무역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는 충격의 연속이었다. 집권 2기에 관세 장벽을 더 높인다면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대미 수출도 타격이 예상된다. 당장 멕시코에 25%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삼성전자·LG전자·기아차·포스코 등 미국 시장을 겨냥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부담도 높아진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의 보편 관세(10~20%)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이 55억~93억달러 감소할 것

으로 추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의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까지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도 0.1~0.4%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정적 예측이 많지만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트럼프 1기 때 관세를 일률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는 안보 중요성 때문에 면제했다가 다시 쿼터제로 전환하는 등 변화를 거쳤다. 이익과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나라별로 협상의 여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대신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다.

관세 파고가 높아질수록 정부 역할이 중요해진다. 우리 기업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미국과 정책 공조를 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 투자하는 국가들, 미국에 생산 시설을 설립한 국가들은 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조선·원전 등 트럼프 당선인의 관심사에 부합되는 분야에서 한미 협력 방안을 더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들 노리를 개발해야 한다.

### 4년 전 추 무죄는 위증 때문 가능성, 그래도 바로잡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핵심 증인인 김진성씨가 2020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은 판결에서 인정됐다. 만일 김씨가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힘들었을 수 있다. 위증이 드러난 만큼 당시의 선거법 재판도 다시 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에 재심을 불가능하다고 한다. 당시 무죄 판결에 거짓 증언이 영향을 주어도 그 판결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02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그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는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한 뒤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했다. 이는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로 쓰였다. 선거법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김씨는 “당시 김병량 시장과 KBS 측이

이 대표 쪽으로(협의를) 몰자고 협의했다” 등의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위증 유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위증이 없었다면 당시 이 대표 선거법 재판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허위임이 증명된 때는 재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은 피고인이 유죄일 때만 가능하고, 무죄 판결은 대상이 아니다. 결국 이 대표는 위증 덕에 무죄가 됐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 위증을 시킨 혐의에서도 무죄가 되고, 위증으로 잘못됐던 과거 판결의 재심까지 피하게 됐다. 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와 불법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법인 카드 불법 사용 등과 관련해 20명이 넘는 사람이 구속됐다.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부지기수다. 주변인 6명은 숨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이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구속을 면했다. 이번에도 이 대표를 위해 거짓 증언한 증인은 처벌받았는데 이 대표는 무죄를 받고 거짓 증언 덕에 무죄가 됐던 과거 사건의 재심도 피하게 됐다.

### 게시판 난타전에 용산 세 과시까지, 한심한 與 내분

국민의힘 내분 양상이 도를 넘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대통령 후보 비싼 글이 다수 올라온 문제를 놓고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가 연일 공개 충돌하고 있다. 친윤계가 “드루킹 수준의 여론 조작”이라고 공격하자 한 대표는 25일 “당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제는 서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한다. ‘가족 작성’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한 대표가 사실을 밝혔으면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한 대표는 지금껏 ‘맞다, 아니다’ 입장 표명이 없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에 서 여당 의원 40여 명을 모아 오찬을 했다. 수석비서관들도 참석했다. 22일엔 홍철호 정무수석이 여당 의원 30여 명과 식사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당정 협력을 강조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정작 당을 이끄는 한 대표는 빠졌다. 대신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똥볼 뭉치자”를 외쳤다. 비서실장이나 정무수

석이 여당 의원 수십 명을 모아 세 과시를 하는 것은 과거 정권에 서 거의 없던 일이다.

반면 한 대표가 주재한 22일 당정 협의엔 대통령실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도 목감기를 이유로 불참했다. 날로 어려워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지원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요즘 ‘양극화 해소’를 외치는 대통령실이 불참할 자리였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회동한 후에도 두 사람의 불화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트럼프 당선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 등으로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민생엔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총선에 참패해 소수당이 된 것도 모자라는지 지금까지도 서로 내분으로 분주하다. 그 내분이 시작된 게 국정 노선 같은 정책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 문제 때문이라니 혀를 찰 일이다.

## 이재명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 진영 싸움도, 정치범도 아냐... 그저 《잡범 피고》일 뿐

뉴데일리  
newdaily.co.kr

《진보·좌파》 진영 전체가 죽자고 덤벼드네  
좌우, 보수 진보 문제 아니다  
이재명 개인 범죄 문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차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찍은 사진. ©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제공

과상하다. 이재명이 진영의 얼굴?

이재명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재명이란 존재의 《개인적 범죄 혐의》의 문제다.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그가 한 행위가 법률적·윤리적으로 어떤 것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름에도 《진보·좌파》를 자처하는 일부는 “이재명의 운명=우리의 운명”이라 일체화한다. 그들은 법원 안과 밖에서 일체히 “이재명 무죄(無罪)”라 외친다. 이재명을 자신들

의 《부족(部族) 메시아 신앙》의 상징점으로 본 것일까?

그러나 ★공직 선거 기간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포와 위증 교사 혐의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 ★대장동·백현동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혐의 ★경기도 법가를 유용한 혐의, 이런 것들이 《진보·좌파》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 얼빠진 자칭 《진보·좌파》

운동권이란 범주가 집단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물론 잘 알려진 대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얽힌 사건들이 《김지하의 5적》 사건이나 《유신헌법 반대》 사건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이재명은 자신이 무슨 정치범이라도 되었다는 양,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 어찌고 한다.

※ 그렇다면, 그런 그를 판사들이 담당 안으로 떠밀어 넣었다는 소린가?  
※ 그의 죄책(罪責)을 증명한 증인들 모두가,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그에게 씌웠다는 소린가?

이재명을 무조건 감싸는 세력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집단 정서에서 단 1분이라도 벗어나라. 그리고 고(故) 김문기 영가의 80 노모의 폐누를 나는 심경을 단 1mm라도 헤아려라. 이재명 판결을 앞두고 할머니는 “아들이 왔다”라 소리치며 대문 쪽으로 달려나갔다(조선일보 2024/11/20)고 한다.

### 그러다간 천벌받는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 우주엔 《인과응보(因果應報)》란 무서운 철칙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자칭 《진보·좌파》는 정치 이전에 모두 나와, 고(故) 김문기 영가의 모친 앞에 숙연히 묵상하라! 그리고 절감하라. 이재명 주변에서 쓰러져간 억울한 영혼들과 그 가족의 비통을!

### 이재명의 코메디 발연

이재명은 말했다. “현실의 법정 위에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이 있다”고.

※ 민심의 법정?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안긴 것도 아테네의 소위 《민심》이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것도 당시의 소위 민심이었다.

※ 역사의 법정?  
역사의 순환은 늘 선동가들의 동상을 여지없이 허물어버린 했다. 레닌 동상도 100년을 가지 못했다.

안됐다 해야 할까? 이재명 같은 《중대 범죄 혐의자》를 마치 무슨 《양심수》나 된 듯 떠받드는 한국 좌파, 어찌다들 그렇게 초라하게 전락하셨을까?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류근일 칼럼: 사법부는 《정치의 발가락》 되었나?  
《사법의 정치화》는 재앙...  
김동원 판사의 《이재명 무죄》는?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11월 20일 게재 되었습니다.